

40~60% 교체설...현역들 잠 못 이루는 밤

더민주 총선 공천률 재정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비해 현역의원의 공천 원천 배제(컷오프)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천률을 재정보하는 등 '물갈이' 절차를 구체화하면서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더민주당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지역에 공천하지 않는 내용의 혁신안을 도입했지만 일부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기로 하자, 국민의당 등이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등 더민주당이 안팎으로 공천 흥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더민주에 따르면, 지난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8일 현재 소속 의원 127명(지역구 106명, 비례 21명)을 기준으로,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컷오프되는 하위 20% 의원은 지역구 21명, 비례 4명 등 총 25명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탈당자나 불출마자를 컷오프 대상에 자동 포함토록 한 문 전 대표 시절의 잠정 결론이 변경됐다. '김종인 지도부'는 탈당자나 불출마자를 컷오프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은 전원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성수 대변인은 "지역구 원천배제 대상인(하위평가자) 21명 가운데 가령 5명이 이미 탈당하고 있다면 그들을 뺀 16명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잔류 의원 가운데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의 공천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다만 탈락자 명단은 의원 개인의 명예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통보 시점에 대해 "22일부터 면접에 들어가는 만큼, 면접 일정을 감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20% 공천 배제 외에 자적심사, 경선 등을 거치면 현역 물갈이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 단장은 "이것(20% 컷오프)은 미니멈(최소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고, 김 대변

탈당·불출마자 포함 안해 하위 20% 컷오프 늘어날 듯

사고 지구당 무공천案 철회

국민의당 "대국민 사기" 비난

인도 "공천 결과를 놓고 보면 더 많은 현역이 탈락, 40%, 50%, 60%도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 방식도 변경됐다. 문 전 대표 시절의 경선방식은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국민공천단)을 꾸린 뒤 현장투표와 전화투표를 병행하는 것이었지만 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과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

역구별로 안심번호가 확보되면 자동응답기(ARS)를 이용해 전화를 건 뒤 지지후보를 묻는 방식의 사실상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20% 컷오프 방침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임 지도부에 비해 현역 탈락자가 더 늘어나는데 이들이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 3선 의원은 "탈당자가 전체 현역의 20%를 넘으면 컷오프를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규정을 변경하면 어찌란 말이냐"며 "일을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당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지역에 공천하지 않는 내용의 혁신안을 도입했지만 일부 해당 지역에 후

보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장 국민의당에서는 더민주의 혁신안 취지와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더민주의 재보선 사유가 중대하지 않아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의 지난 7월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혁신안을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본인들의 잘못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공천면접 시작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대 총선 공천면접에서 마포구갑 안대희, 강승규 예비후보들을 면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약없는 선거구 확정...일부 총선 연기 목소리 23일 본회의 처리 난망

4·13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모두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매몰돼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수차례 협상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골자로 하는 획정안에 공감을 보였다고 밝혔지만 바 있다. 광역별 의석 수와 인구상정 기준을 일부 조정 협상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큰 줄기에서 보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노동개혁 등 쟁점법안의 동시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선(先) 선거구 획정, 후(後) 법안 논의'의 입장을 고수하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는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늦게 선거구가 확정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 때도 선거를 44일 앞둔 2월 27일야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된 바 있다. 최악은 지난 17대 총선(2004년 4월5

일)으로 선거를 불과 37일 앞둔 3월9일에야 극적으로 처리됐다.

자칫 선거가 끝나고 선거결과에 불복, 선거무효 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일각에서는 선거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여야는 일단 오는 23일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22일 또다시 협상에 임할 예정이나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더욱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본회의의 소집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일각에

서는 여야가 29일 처리를 합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 처리가 23일을 넘기면 중앙선거관리위의 선거관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오는 24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2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기존 지역구대로 명부를 만들었다가 새 지역구에 따라 재작성을 해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자칫 시간이 쫓겨 오류가 생길 위험성도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jkpark@

4·13 총선 현장

정진욱, 남구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

국민의당 정진욱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섰다. 정 예비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에서 "희망 3중 교체(정권교체·야당교체·선수교체)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인문계와 기업, 청년 인재 육성을 통해 쌓은 경



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시민경제 살리기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에 우선 가치를 두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남구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송기석, 양동시장서 전통시장 활성화 논의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20일 광주의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과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형축제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또한, 첨단시설을 갖춘 대형 주차 빌딩 건립과 지하철 양



동역 엘리베이터 설치, 먹자골목 조성사업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예비후보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형주차장 마련 등 여러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형욱, 담양·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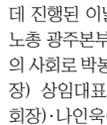
강형욱 서북전남발전연구원장이 지난 19일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강 원장은 "서북 전남지역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지역의 발전과 변화에 헌신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영광 출생인 강 원장은 행정고시(21회) 출신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기획·대외협력팀장,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장, 재정경제부 공무원 등 30여년 동안 경제 부처에서 근무해왔다.

민중정치연합, 광주시당 창당대회

노동자·농민·청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민중정치연합(가칭)광주시당이 21일 창당대회를 마쳤다. 광주 서구 지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마쳤다.



데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정우길(민주노동당 광주본부 수석부위원장) 임시의장의 사회로 박봉주(전 민주노동당 광주본부장) 상임대표와 오호영(광주시농민회 회장)·나인옥(광주전남청년연대 대표)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홍진태, 동구청장 출마 선거 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홍진태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전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당 관계자와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나이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특정 세력만을 위한 구청장이 아닌 구민을 위한 구청장이 되겠다"면서 "맛과 품격있는 문화공공체 동구건설을 위해 다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문화는 곧, 경제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홍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동구민의 꿈을 모아 동구가 광주의 중심, 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채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전투자 물건위주로 강의!

2016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1. 18(월) ~ 2016. 2. 25(목)
- 수업기간: 2016. 3. 3 ~ 2016. 6. 9
- 매주 목요일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18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usun.ac.kr/lifel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0621230-7700~2 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목조주택 무료 공개강좌

3월 8일(화) 저녁7시~9시
광주대학교 호심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3월 9일(수) 저녁7시~9시
국립목포대학교 (목포시 남악 캠퍼스)

3월 10일(목)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공개강좌 예약 필수, 강의실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전담강사 010-5766-5754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H. 010-5766-5754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파주농맛길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